

## 한·일 전통복식에 나타난 청색의 고유성 연구

이경희<sup>1)</sup> · 이은주<sup>2)</sup>

- 1) 금오공과대학교 섬유패션공학전공
- 2)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 The Characteristics of Blue Color on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Costume

Kyung-Hee Lee<sup>1)</sup>, Eun-Joo Lee<sup>2)</sup>

- 1) Dept. of Textile and Fashion Engineering,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Kumi, Korea
- 2)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blue col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costumes. Korea and Japan as the neighboring country of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but showed obvious difference in traditional colo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blue color characteristics that appear on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costumes. We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s of blue color on color names and color tones through the old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s, costume remains and restoration dyeing fabrics. This study researched the Chosun Period in Korea and Edo Period in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Many differentiation colors appeared in Chosun and Edo period than former ages. These differentiation colors were made giving differences gradually in basic color, hue, value and chroma. The blue color names appeared 40 names in Chosun Period and 57 names in Edo Period. In these blue color names of Chosun and Edo Period, the common color name was not more 'indigo'. The most highly appeared blue color hues of costume remains in Chosun and restoration dyeing fabrics in Edo Period were blue and purplish blue. The most highly appeared blue color tones were dull and moderate. By result of proceeding descriptions,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color were not come from difference of dye and dyeing method, could know that come from difference of society and cultural environment.

**Key words :** blue color, characteristics, Chosun Period, edo period, traditional costume.

### 1. 서 론

청색은 자연계의 하늘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색으로, 인류에게는 가장 친근한 색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색을 선호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청색은 기호색의 우선 순위에 나타난다(이경희, 1997).

청색은 청춘, 희망, 행복, 평화, 안심, 상쾌함 등의 플러스 이미지와 우울, 슬픔과 같은 마이너스 이미지를 갖지만(日本流行色協會, 1991), 대자연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색으로서의 친근감과 강한 플러스 이미지로 인해 UI컬러, CI컬러, 광고색채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평화의 상징색으로서의 청색은 국제연합기와 한반도기를 비롯한 각 국의 국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합성염료가 발명되기 이전의 청색은 남(藍, 쪽)으로부터 얻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남은 인류 최고의 친연염료의 하나로, 기원전 수천년 전부터 지구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사용되어져 왔다. 남의 원산지는 그 염료의 색명인 인디고(Indigo)에서 나타난대로 인도로 알려져 있지만, 남의 주성분인 인디칸(Indican)이라고 하는 색소를 갖고 있는 식물은 상당히 종류가 많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라는 여뀌과의 요남(蓼蓼), 인도에서 자라는 콩과의 인도남(印度藍), 동남아시아의 유구남(琉球藍), 남미의 멕시코남, 유럽의 대청(大青) 등을 들 수 있다.

남의 색소는 마와 목면과 같은 식물성섬유에서나 양모와 견과 같은 동물성섬유에서 모두 염색성이 좋기 때문에, 식물 속에 포함된 인디고를 정제하여 염색하는 기법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남은 지구상의 넓은 지역으로 전해졌고, 복식염색에서의 남의 사용은 이집트의 유물에서도 발견될 만큼, 고대로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吉岡, 1982).

한반도에서도 남염은 고대로부터 빈번히 행해졌다. 한반도에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Lee  
Tel.+82-54-467-4374 , Fax. +82-54-467-4477  
E-mail: k.lee@knu.t.kumoh.ac.kr

서의 남염의 역사는 『후한서(後漢書)』를 통하여 삼한시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통해서도 고대로부터 남염이 많이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김지희, 1993) 이처럼, 청색염료로서의 남은 세계각지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청색의 색명과 색조에는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민족의 고유한 색채를 '민족색채'라고 부를 수 있는데(이경희 1996), 이는 그 민족의 풍토, 문화, 사회, 경제적인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 고유한 색채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민족색채의 고유성을 통해 그 민족의 색채감정과 색조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 민족색채에 대한 기초지식은 현대의 수출산업의 컬러 마케팅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가이기는 하지만 색채문화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上代)의 색채문화에서는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근세에 와서는 한국인은 오정색(五正色)으로 대표되는 순색을 선호하고, 일본인은 차색(茶色)과 쥐색(鼠色)으로 대표되는 탁색을 선호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청색을 중심으로, 근세 한국과 일본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청색의 색명과 색조의 특성을 조사하여, 청색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민족색채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의 전통색과 복식은 조선시대(1392-1910)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색과 복식은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2. 조선시대의 청색계 색명의 특성

색채학에서 정의하는 색이란 가시광선내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일으키는 시지각이고, 색명이란 일정한 빛의 파장의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근대의 색채학의 발달 이전의 색명이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일정한 범위의 색을 지칭하는 고유의 언어이므로, 지역적으로 나타난 고유한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근대의 색채학의 발전으로 컬러 시스템이 창안되고, 계통색명의 표기방법이 고안되었지만, 그 이전의 색명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 지역 고유의 관용색명(慣用色名)이었다. 이러한 민족고유의 관용색명이란 그 민족 특유의 색명문화를 나타내므로, 관용색명을 통해서 민족색채의 고유성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관용색명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염색분야이고, 염색은 복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고문헌에 나타난 색명들은 대부분 복식에서 사용되는 색명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먼저, 조선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청색계 색명의 종류와 구조를 통해서 청색에 나타난 색명문화의 고유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1. 조선시대의 문헌 중에 나타난 청색계의 색명

한국의 전통색명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분화되어 조선시대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색명인 약 152색을 나타낸다(이양섭,

1992). 이는 조선시대에 다양한 문화색이 나타났음을 의미하고, 염색시 색과 색의 혼색인 교염(交染)에 의해 중간색이 많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조선인이 미묘한 색의 차이를 구분해 쓸 수 있는 세련된 색채감정을 갖고 있었음과, 매염제의 사용에 의한 다양한 문화색을 만들 수 있도록 염색기술이 발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색 중, 청색계의 색명은 흥색계와 더불어 가장 분화가 커서 40색이 출현하는데(Table 1), 이것은 조선시대에 나타난 152색의 약 26%를 차지할 만큼 큰 비율이다. 이것은 조선인의 청색에 대한 기호도와 활용도가 그만큼 커음을 의미

Table 1. 주요문헌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청색계 색명(이경희, 1999)

순서	청색계색명	주요문헌
1	청(青)	
2	담청(淡青)	
3	천청색(淺青色)	
4	천청(天青)	
5	단청색(蛋青色)	
6	남청(藍青)	
7	아청(鴉青)	의대발기
8	유청(柳青)	
9	황유청(黃柳青)	
10	청유청(青柳青)	
11	포도청색(葡萄青色)	
12	포두청색(包頭青色)	
13	심청(深青)	
14	회청(灰青)	
15	복청(福青)	
16	청조색(青早色)	
17	남(藍), 남색(藍色)	의대발기, 규합총서
18	이람(二藍)	
19	연람(軟藍)	
20	표람(標藍)	
21	남간(藍間)	
22	남양(藍兩)	
23	암람(暗藍)	
24	폼람(品藍)	
25	양람(洋藍)	의대발기
26	일람(日藍)	
27	양남(亮藍)	
28	진남	폐물발기
29	취람(翠藍)	
30	천람(天藍)	
31	심람(深藍)	
32	옥색(玉色)	의대발기, 규합총서
33	청옥색(青玉色)	의대발기
34	심옥(深玉)	
35	벽(碧)	
36	청벽(青碧)	
37	반들	규합총서
38	번루	규합총서
39	갈매	의대발기
40	남송(藍松, 南松)	의대발기, 袤발기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청색계는 홍색계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이다(이경희, 1999). 표1에 나타난 청색계 색명을 보면 한자어가 대부분이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쓰여진 각종 '발기'(牛記)와 「규합총서」에는 한글어 색명이 등장한다. '발기'란 궁중 안에서 통용되던 물품목록을 적은 문서이다(김용숙, 1996).

그 중 「영친왕가 의대발기(英親王家 衣發記)」에는 23가지의 색명이 출현하고, 총 726회의 색명의 지칭이 나타난다. 그 중, 의대발기에 나타난 청색계 색명은 7개로, 전체 출현색의 30.4%의 출현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청색계 색명의 출현횟수는 307회로 전체 색명 지칭의 42.3%라고 하는 가장 높은 출현비율을 나타낸다(이경희, 1999).

한편, 19세기에 나온 「규합총서」에서도 15가지의 염색법 중, 청색계 염법에 대해 4가지가 쓰여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청색사용은 왕가의 복식으로부터 일반 민중의 복식에까지 널리 사용되는 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전통색은 아직 연구도상이라 할 형편이므로, 학계에서 공인된 각각의 색명에 대한 색조의 표준치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인국인 중국과 일본은 전통색에 대한 학계에서 공인된 색명과 색조의 표준치를 갖고 있고, 전통염법으로 색조를 복원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색명에 대한 구체적인 색조는 색명의 구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색명에 '청'과 '남'이 붙어있는 색명과 쪽으로 염색했다는 기록이 있는 색명을 청색계 색명에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 2.2. 조선시대의 청색계 색명의 구조

색명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명사+색'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은 접미어인 '색'을 생략하여 통용된다. 그러나, '옥색'과 같이 관용적으로 붙여쓰는 색도 있다. 이처럼 관용적으로 '색'을 붙이는 색명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색명에서는 '색'을 생략하였다. 이러한 청색계 색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그 주요한 구조를 기본색명, 기본색명의 조합,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색명: '청', '남', '옥', '벽'으로 청색계의 기본이 되는 색들을 가리킨다. 아직 학계에서 공인된 색조의 대표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 기본색명은 서로 다른 저마다의 고유한 색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색명의 조합**: 기본색명 두가지가 합하여 이루어진 색명을 말한다. 즉, '남청', '청벽', '청옥' 등과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색명은 두 기본색의 색조를 함께 나타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 기본색의 농담색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한국전통색에서 농담색은 주로 3~4단계로 표현하였다. 청색의 경우는 '천(淺)', '연(軟)', '담(淡)'의 수식어를 붙여 담색을, '심(深)', '암(暗)'의 수식어를 붙여 농색을, '진'이나 '천(天)'의

Table 2. 청색계 색명의 색조를 나타내는 수식어

분류	색조의 수식어
담색	천(淺), 연(軟), 담(淡)
농색	심(深), 암(暗),
순색	진, 천(天)
탁색	회(灰)

수식어를 붙여 순색을, '회(灰)'의 수식어를 붙여 탁색을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Table 2).

이러한 농담색의 색조를 나타내는 수식어는, 현대의 색채용어로 비유하자면 명도와 채도, 혹은 명도와 채도를 합한 톤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천', '연', '담'의 수식어는 기본 색명보다 밝고 연한 색조를 나타내고, 수식어 중에 '심'은 선명하고 진한 색조, '암'은 어두운 색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식어 '진'은 순수한 색이든가, 본래의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했다고 하는 의미로, '천'은 하늘에 빗대어 맑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이나 남중에서도 채도가 높은 색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 전통색은 오정색과 오간색의 개념을 갖고, 순색인 오정색을 혼색인 오간색보다 중히 여겼으므로, 전통적으로 탁색인 회색기미의 색은 드물다. 그런 가운데 '회'의 수식어는 회색기미의 색, 즉, 탁색을 나타내는 드문 예로 보여진다.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농담의 단계를 나타낸 사례를 보면, 기본색인 청에 대하여, '심청(深青)', '청', '천청(淺青)', 혹은 '담청(淡青)'과 같은 3~4단계의 농담색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 2.3. 조선시대의 청색계 색명의 유래

Table 1에 나타난 청색계 색명의 유래로는 다음과 같이 염료, 염색방법, 식물, 동물, 광물로부터 유래한 색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염료에서 유래한 색명: '복청', '남', '쪽'은 청색계 염료인 남을 나타내는 명칭이므로, 염료로부터 유래한 색명으로 볼 수 있다(이은주, 1994). 염색방법에서 유래한 색명: '이람'은 두 가지 염재를 사용하여 염색했다는 의미로 판단되므로, 염색방법으로 부터 유래한 색명으로 볼 수 있다.

식물에서 유래한 색명: '유청'은 버들, '포도청색'은 포도, '남송'은 소나무에서 유래한 색명으로 볼 수 있다. 동물에서 유래한 색명: '아청'은 흑색에 가까운 청색으로, 갈가마귀의 검은 색으로부터 유래한 색명으로 볼 수 있다. 광물에서 유래한 색명: '옥색'과 '청옥색'은 옥, '취립'은 비취로부터 유래한 색명으로 볼 수 있다.

## 3.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의 특성

에도시대는 일본의 봉건제도가 확립된 시기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으나, 경제력을 가진 상인

들이 실력을 가지게 되어, 상인문화가 대두하였다. 에도시대 중기이후의 생활문화는 ‘평민문화(町人文化)’로 대변되는 상인계급의 문화이다.

상인계급은 금권은 있었으나, 당시 사회의 지배층(武家)으로부터는 경시당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관은 출세의 야심을 버리고 현재를 멋있게 사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인생관중에 찍혔던 것이 ‘수(이기, 粹)’라는 미의식의 의식현상이고, 존재양태였다.

에도막부(江戸幕府)는 경제력을 가진 부호상인들의 사치를 막기위하여, 미복금지(美服禁止)와 같은 금령(1683)을 내렸다(長崎, 1990). 이 시대의 유행복식은 후세와 달리, 복지의 질, 염료의 가격, 색조사용의 제한중에 생겨난 것이었는데, 고가의 흥화염(紅花染)과 자근염(紫根染)은 상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유행색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격이 싸고 수수한 차색계(茶色系), 서색계(鼠色系), 남색계(藍色系)의 색들은 막부의 서민정책에 부합되는 색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에도시대의 민중들은 막부에서 허용된 수수한 색들 간의 자유로운 배색을 즐김으로써, 그들의 미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이러한 유행을 반영하는 말로 48가지의 차색과 백가지의 쥐색이 존재한다는 의미의 말(四十八茶百鼠)이 유행하였다.

또한, 실제로도 색명 끝에 ‘茶’와 ‘鼠’가 붙여진 색명이 많이 등장하였다(이경희, 1996). 지배계급인 무사(武士)의 정식 장속(裝束)에는 대체로 ‘쥐색(鼠色)’이나 ‘화색(花色, 연한 청색)’이 사용되었는데, 걸옷 밑에는 남염의 줄무늬나 격자무늬의 장속(노시메, 慰斗目)을 입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처럼 무사의 공적인 복식은 수수한 색의 검소한 직물로 통일되어 있었다.

한편, 남염은 에도시대에 목면이 일본으로 전해진 후, 목면에 남염을 들이는 염색작업으로 민중들간에 활발히 행해졌다. 이와 더불어 남의 분화색도 대폭 증가하였다. 「日本色彩文化史」에서 지적하는 이러한 색의 명칭은 차색계통이 44색, 쥐색계통이 22색, 남색계통이 22색, 그 외가 71색이었다(江幡, 1982). 이처럼 에도시대에는 청색계가 차색계나 쥐색계와 더불어 중요한 유행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에도시대에는 중요한 산업식물로서 3초(마, 남, 흥화)와 4목(뽕나무, 닥나무, 차나무, 옻나무)을 보호장려하였는데, 남은 3초에 포함되어 보호되었다. 고대이래 일본 서민의 의료는 마였는데, 에도초기에 마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것은 일본 서민에게는 의료혁명이었다. 남은 염색방법이 간단하지는 않았지만 서민들의 의료인 마, 면 등의 식물성섬유에 염색성이 좋았고 일광건조도가 높으므로, 에도시대 서민들의 대표적인 염료로 자리잡았다.

남은 목면의 보급에 따라 그 실용성이 높아지고, 농촌에 널리 분포되어, 농가에서는 남염을 이용한 줄무늬(시마, 縞)와 이카트(Ikat, 카스리)와 같은 전통적인 문양염과 사염(絲染) 등이 행해졌다. 에도시대 초에 교토에는 남염집이 232채나 있을 정도로 번성하였고, 일본 전국 어느 지방에서나 남염을 전문적으

Table 3. 복원염포를 통해 본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

순서	복원염포의 청색계색명	축색데이터(먼셀기호)	출전
1	남생벽(藍生壁)	3.5PB 5.3/1.9	A
2	남심천(藍深川)	8.8B 5.4/1.1	A
3	박람(薄藍)	2.7PB 5.3/3.4	A
4	박화색(薄花色)	1.2PB 5.6/2.7	A
5	하납호(霞納戶)	0.5PB 5.6/1.8	A
6	혁색(革色)	3.5PB 1.9/1.3	A
7	소서(素鼠)	3.1PB 4.6/1.0	A
8	청남색(青藍色)	2.4PB 4.3/6.4	A
9	철납호(鐵納戶)	3.8PB 2.7/2.6	A
10	위두목색(慰斗目色)	3.6PB 4.3/4.1	A
11	위두목공색(慰斗目空色)	0.1PB 6.2/4.6	A
12	남(藍)	3.7PB 3.5/6.7	A
13	남어납호(藍御納戶)	3.8PB 2.6/4.1	B
14	남립(藍蠟)	2.3PB 4.6/6.2	B
15	천황(淺黃)	1.3PB 5.6/6.1	B
16	박천황(薄淺黃)	9.9B 6.7/4.9	B
17	박천초(薄千草)	9.4B 7.0/4.5	B
18	병사(瓶司)	8.5B 7.9/2.5	B
19	길경화색(桔梗花色)	2.9PB 3.8/5.0	B
20	은서(銀鼠)	7.1B 5.1/1.6	B
21	농화색(濃花色)	2.9PB 4.0/6.9	B
22	공색(空色)	1.2PB 4.9/6.4	B
23	천초(千草)	1.2PB 5.0/6.8	B
24	화색(花色)	0.8PB 4.9/6.9	B
25	백군(白群)	1.3PB 5.4/5.3	B
26	심천소(深川鼠)	8.7B 4.4/2.2	B
27	천화색(舛花色)	7.9B 3.5/3.8	B
28	수천황(水淺黃)	8.0B 7.4/4.0	B
29	수색(水色)	0.5PB 5.6/6.7	B
30	남세미(藍細美)	7.0PB 2.2/4.4	A
31	남흑(藍墨)	7.4PB 3.3/3.2	A
32	남철(藍鐵)	4.5PB 1.7/1.4	A
33	남서(藍鼠)	4.8PB 3.2/1.4	A
34	남구우(藍鳩羽)	6.7PB 5.4/1.0	A
35	청갈(青褐)	5.4PB 2.2/0.6	A
36	병사(瓶司)	5.9PB 7.5/1.3	A
37	길경(桔更)	7.8PB 2.8/9.0	A
38	미화색(尾花色)	7.0PB 5.3/3.9	A
39	감청동(紺青藤)	7.7PB 4.4/7.4	A
40	길경서(桔更鼠)	5.0PB 4.0/2.3	A
41	길경납호(桔更納戶)	7.8PB 2.5/5.6	A
42	고려납호(高麗納戶)	5.9PB 2.0/3.4	A
43	감(紺)	8.6PB 1.7/4.3	A
44	상사서(想思鼠)	6.0PB 5.9/2.5	A
45	염납호(艷納戶)	6.0PB 4.4/8.1	A
46	남호(納戶)	5.0PB 3.2/4.3	A
47	구우(鳩羽)	8.1PB 5.2/5.9	A
48	홍괘길경(紅掛桔更)	8.3PB 4.1/5.5	A
49	류리감(瑠璃紺)	8.6PB 2.3/6.5	A
50	어소철(御召鐵)	4.6PB 2.8/1.7	B
51	승색(勝色)	8.8PB 2.1/3.5	B
52	하감(下紺)	8.5PB 2.0/3.7	B
53	농천황(濃淺黃)	4.8PB 3.4/7.6	B
54	감길경(柑桔更)	8.4PB 2.2/2.3	B
55	납호(納戶)	6.8PB 2.6/5.4	B
56	농감(濃紺)	7.9PB 2.2/4.4	B
57	군청(群青)	7.0PB 3.4/7.3	B

로 행하는 염색집(고우야, 紺屋)이 있을정도로 남염이 성행하였다(日本藍染文化協會, 1994).

본장에서는 에도시대의 전통복식의 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에 나타난 청색계 색명의 종류와 구조를 통해서, 에도시대의 청색에 나타난 색명문화의 고유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1. 복원염포에 나타난 에도시대의 청색계의 색명

에도시대에 나타난 청색계의 색명과 색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에도시대의 기모노의 색을 복원한 高島秀造의『江戸の彩飾(300色)』과 松本宗久의『日本色彩大鑑(近世, 江戸の色, 401色)』에 나타난, 합계 701색의 색명을 조사하였다.

이중,『江戸の彩飾』에서는 수록색 300색 중, 청색계가 37색으로 12.3%, 또한『日本色彩大鑑』에서는 수록색 401색 중 청색계가 29색으로 7.2%였다. 이 두 책에서 중복되지 않은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은 57색이었다(Table 3).

본고에서의 청색계의 기준은 JIS Z 8102(물체색의 색명)에 준거하여, 녹색기미의 청(2B-7B미만), 청(7B-4PB미만), 자색기미의 청(4PB-9PB미만)의 범주를 청색계의 색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색채색차계(Minolta CR-300)를 사용하여, 복원염포의 색을 3회 측색한 평균치를 면셀기호로 표기하여, 상기의 청색계에 해당되는 범주의 색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의 출전에서『江戸の彩飾』은 A로,『日本色彩大鑑』은 B로 표시하였다.

### 3.2.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의 구조

Table 3에 나타난 에도시대 청색계색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기본색명, 기본색명이 조합된 색명, 수식어와 기본색명이 조합된 색명, 색명과 색명의 조합, 에도시대 고유의 색명표현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기본색명** : '청', '남', '감' 등으로 청색계의 기본이 되는 색들을 가리키고, 각각의 기본색명은 저마다의 고유한 색조를 나타낸다.

**기본색명의 조합** : 기본색명 두가지가 합하여 이루어진 색명으로 '청남', '남혹' 등을 들 수 있다.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 :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색의 색명에는 기본색명 앞에 수식어가 붙어 담색, 농색, 순색, 탁색 등의 색조를 나타낸다. 담색에는 수식어 '백', '수', '박'을, 농색에는 '심', '농'을, 순색에는 '소'를, 탁색에는 '서'를 붙였다.

농담색의 정도는 보통, 명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정량

Table 4. 청색계 색명의 색조를 나타내는 수식어

분류	색조의 수식어
담색	백(白), 수(水), 박(薄)
농색	심(深), 농(濃)
순색	소(素)
탁색	서(鼠)

의 용액에 염료를 어느 정도 넣어 염색하는가에 따라 색의 농담이 나타나는데, 천연염색의 경우에는 염료액에 피염물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넣었는가에 따라 색의 농담이 달라진다. 이러한 농담색의 구체적인 색차를 구해본 것이 Table 5이다.

Table 5를 보면 농담색의 색상은 동일색상이나, 인접색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식어 '백', '수', '박'이 붙은 색은 기본색보다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가 낮아진 경우이다. 색명 앞에 '수'가 붙은 경우는 염료를 물에 희석해서 연하게 염색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담색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수식어 '농'이 붙은 색은 기본색보다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는 높아진 경우이다. 그리고 에도시대의 유행색인 '서색(鼠色)'의 '서'가 색명 끝에 붙어있는 색은 회색기미의 색을 가리킨다. 이러한 색조를 나타내는 현대적인 표현이 '그레이ッシュ'인데 에도시대에는 색명 끝에 '서'를 붙임으로써, 쥐색, 즉, 회색기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보듯이 색명 끝에 '서'가 붙어있는 경우는 기본색보다 명도, 채도가 함께 낮아져, 어둡고 탁해진 분화색을 가리킨다.

수식어 '소'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소'가 붙은 색의 경우는 다른 색기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본래의 색조를 의미한다(福田, 1987).

Table 5. 청색계 농담색의 색차

기본색명	농담색	측색데이터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
남	박남	2.7PB 5.3/3.4	1	1.8	3.3
3.7PB	남서	4.8PB 3.2/1.4	1.1	0.3	5.3
3.5/6.7	화색	1.2PB 5.6/2.7	0.4	1.0	4.2
0.8PB	농화색	2.9PB 4.0/6.9	2.1	0.6	0
4.6/6.9	수천황	8.0B 7.4/4.0	3.3	1.8	2.1
1.3PB	박천황	9.9B 6.7/4.9	1.5	1.1	1.2
5.6/6.1	농천황	4.8PB 3.4/7.6	3.5	2.2	1.5
천초	박천초	9.4B 7.0/4.5	1.8	2.0	2.3
1.2PB	5.0/6.8	7.9PB 2.2/4.4	0.7	0.5	0.1
8.6PB	농감	1.3PB 5.4/5.3	5.7	2.0	2.0
1.7/4.3	백군	5.7	2.0	2.0	
군청	백-	3.3	1.8	2.1	
7.0PB	수-	1.2	1.5	2.8	
3.4/7.3	평균	1.1	0.3	5.3	
	탁-	2.1	1.1	0.5	

**색명과 색명의 조합** : 청색계의 두 가지 색의 색명이 조합되어 새로운 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색명에는 ‘위두목공색’, ‘길경화색’, ‘길경납호’, ‘류리감’, ‘감길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색명은 두색의 색조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에도시대 고유의 색명표현** : 색명 ‘홍폐길경(紅掛桔更)’의 ‘폐’는 색과 같은 의미인데, 염색 기술로부터 온 용어로, 홍(紅)이나 남(藍)을 중염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어소철(御召鐵)’의 ‘어소(御召)’란 기모노의 장식용품 중 선 염직물의 명칭을 일반화한 것인데, 원래, 고귀한 사람이나 장군이 입으시는 의료로부터 파생된 용어이다. 용어를 미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급’라고 하는 의미의 추상적인 형용어로 생각된다.

‘은서(銀鼠)’의 ‘은’은 백색기미, 광택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3.3.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의 유래

색명은 색을 나타내는 염료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꽃에서 보여지는 색, 열매의 색, 혹은 새나 동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색이 혼히, 색명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염색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본색의 농담의 차이에 의한 색명, 기본색에 다른 색기미를 더한 색명, 2종류의 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색명이 있고, 유행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색명 등도 있다.

이러한 색명은 시대, 사회환경 등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특징을 나타내므로, 색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Table 3에 나타난 에도시대의 청색계색명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염료, 염색과정, 초화, 동물, 광물, 생활환경, 유행현상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염료에서 유래한 색명** : 염료로 이용되는 청색계 식물은 몇 종 있으나, 남이 불어있는 색명은 남초로부터 온 것을, ‘군청(群青)’은 광물성염료로부터 온 것을 암시한다. 군청은 광물의 안료중 가장 농후한 청색을 가리킨다(福田, 1987)

**염색방법에서 유래한 색명** : ‘병사’, ‘이람’ 등은 염색과정을 암시해주는 색명으로 판단된다. 즉, ‘병사’는 남향아리를 엿볼 정도로 잠깐 담근다는 표현이고, ‘이람’은 남과 홍화의 교염에 의해 염색했다는 것을 암시한다(長崎, 1987).

**식물에서 유래한 색명** : ‘길경’은 꽃에서 유래하는 색명이다(福田, 1987).

**동물에서 유래한 색명** : 새나 동물의 종류나 특징을 색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에도시대의 색명중 ‘서’를 색명의 끝에 붙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쥐의 털색에 빗댄 회색기미를 의미하는 것이다(長崎, 1987).

**광물에서 유래한 색명** : 광물이 갖고있는 고유한 색으로부터 유래하는 색명으로, ‘류리감’의 ‘류리’는 유리를 나타낸다. ‘은서’의 ‘은’은 광물로부터 온 용어로, 색명에 불을 경우는 밝은 회색이나, 백색기미, 광택 등의 미묘한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생활환경에서 유래한 색명** : 에도시대의 색명중, ‘위두목색(懸

斗目色)’은 에도시대의 무사의 장속(노시메, 懸斗目)에서 혼히 쓰이는 색이라는 뜻의 색명이다. 또한, ‘납호색(納戶色)’은 의상이나 조도품을 넣어두는 광(納戶)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그 어두컴컴함으로부터 온 색명이다(福田, 1987).

**유행현상에서 유래한 색명** : 에도시대에는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부키(歌舞伎)등의 연극이 미증유의 성황을 보였고, 색명에서도 당시의 가부키의 인기배우의 이름을 빗댄 색(役者色)이 유행하였다. 이중 청색계 색명에는 ‘천화색(舛花色)’, ‘고려납호(高麗納戶)’가 있다. ‘천화색’은 시천단십랑(市川團十郎), ‘고려납호’는 송본행사랑(松本幸四郎)과 같은 유명한 가부키 배우들이 착용한 의상의 색으로, 이러한 색들이 일반 민중들간에도 유행색이 되었다(長崎, 1990).

## 4. 조선시대의 복식유물에 나타난 청색계 색조의 특성

전통색을 조사하기 위한 염색자료로서는 문헌이나 풍속화와 같은 간접자료와 염직유물과 같은 실물자료로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좋은 것은 실물자료인 염직유물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염직유물은 체손되기 쉽고, 또한, 한국은 옛부터 전란이 많았던 탓으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이전의 유물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조선시대 말기의 유물이다. 더구나 색의 변퇴 등을 염려하여 측색조사를 불허하는 박물관이 많아 유물의 색을 측색하는 실증적인 연구에는 어려움이 많다.

유물의 측색치와 더불어 전통적인 천연염색의 방법으로 유물의 색조를 재현해서 비교하고, 이를 데이터화해야 전통색의 색조가 표준화될 수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전통염색방법 또한 문헌이 드물고,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 전통색의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조선시대말기의 유물만이라도 보존상태가 좋은 것을 중심으로 측색하여 그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전통색의 실증적인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배경하에 청색계의 색조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측색이 허가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색계 유물을 측색조사하여, 그 색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7의 복식유물은 숙명여대박물관(A), 전국대박물관(B), 일본 사이타마현립 근대박물관(埼玉縣立近代博物館, C)에 소장, 전시된 복식유물이었다. 그리고 유물의 유형은 전복, 단령, 제복, 철린, 구군복, 당의, 원삼, 활옷, 저고리 등의 의류와 후수, 흥배, 대, 굴레와 같은 장신구와 조각보 등의 생활용품이었다. 조각보란 복식을 만들고 남은 조각천을 이어붙여 만든 보자기이며, 본고의 자료에 포함시켰다.

복식유물의 측색에는 색채색차계(Minolta CR-300)를 사용하여, 유물의 색을 3회 측색한 평균치를 면셀기호로 표기하였다. 그 측색결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7이다.

Table 7의 측색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면셀 컬러 시스템의 HV/C의 삼속성에 있어서의 분포결과로 살펴본 것이 Table 8이

Table 6. JBCC의 계통색명과 톤 분류표

계통색명		톤	
B	Blue	v	vivid
gB	greenish Blue	s	strong
pB	purplish Blue	p	pale
V	Violet	m	moderate
		d	dull
N	Neutral	dp	deep
		gy	grayish
		dgy	dark grayish

다. 이때, 색상은 면셀 휴로 분류하고, 채도는 FIC의 색상별 채도구분을 적용하였다(이경희, 1995). 그 다음 Table 9는 유물의 측색결과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해 본 것이다.

한편, 톤은 명도와 채도를 합한 개념의 용어인데, 디자인 현장에서는 색을 명도와 채도로 분류하기 보다는 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산업체현장에서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미국 ISCC(전미색채협의회)-NBS(미국국가표준국)의 계통색명 분류법을 따른 JBCC(JAFCA BASIC COLOR CODE)의 계통색명과 톤 분류로 표시하였다.

Table 6은 본고에서 사용한 계통색명과 톤의 분류표이다. 청색계의 유물에는 육안으로는 청색계일지라도 측색치에 녹색기미나 자색기미가 포함된 유물도 있었다. 쪽이 발색할 수 있는 색조 중에 녹색기미가 나타난다(이은주, 1994).

이것은 쪽의 생엽을 염색하였을 때에 잘 알 수 있다. 쪽의 생엽을 갈아 염색하면, 그 색조는 청색이라기 보다는 녹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쪽의 생엽은 녹색으로 별색된다. 그러므로 고대사회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녹색을 청색에 포함시켰는데, 그러한 청색과 녹색의 혼용습관이 현재까지도 남아, 녹음이 우거진 산도 ‘푸른 산’, 교통신호등의 녹색도 ‘파란 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한편, 쪽에는 청색 색소 뿐만 아니라 적색 색소인 ‘인디루빈(Indirubin)’도 포함하므로, 쪽으로 염색하였을 때 붉은 기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쪽으로 염색한 유물중에는 자색기미의 청도 포함된다.

한편, 청색계에 녹색기미, 자색기미, 혹은 흑색기미가 나타나는 것은 교염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김지희, 1993). 이처럼 색소와 염색방법에 의해 쪽은 복합적인 색조를 나타내지만, 본고에서는 측색치를 통하여 청색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녹색기미의 청(2B-7B), 청(7B-4PB), 자색기미의 청(4PB-9PB)의 유물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Table 7은 청색계 복식유물의 측색치를 면셀기호와 JBCC의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한 것을 정리한 표이다. 또한, Table 8의 HV/C의 분포도를 보면, 명도는 저명도(0-3)가 26예, 중명도(4-6)가 14예, 고명도(7-10)는 6예로, 저명도의 유물이 많았다.

또한, FIC의 색상별 채도구분을 적용한 채도의 분포는 저채도가 13예, 중채도가 25예, 고채도가 8예로, 중채도와 저채도의 비

Table 7. 조선시대 복식유물의 측색데이터

순서	복식유형	측색데이터 (면셀기호)	소장처	계통색 명	톤
1	전복	3.2B 2.4/1.0	A	B	dgy
2	단령	4.5B 2.9/3.1	B	gB	d
3	후수	4.9B 2.1/0.7	B	B	dgy
4	제복	5.1B 3.8/3.3	A	gB	m
5	제복	7.5B 4.3/3.5	B	gB	m
6	제복	8.1B 3.6/4.7	A	gB	m
7	제복	8.4B 2.7/1.4	A		N
8	홍배	9.5B 2.6/2.4	B	B	dgy
9	제복	9.6B 2.4/2.0	A	B	dgy
10	제복	9.7B 2.1/1.2	A	B	dgy
11	전복	9.8B 2.9/3.0	A	B	d
12	제복	10.0B 2.1/1.4	A	B	dgy
13	제복	0.6PB 2.3/3.4	A	B	d
14	단령	1.4PB 2.3/2.8	B	B	d
15	구군복	1.6PB 3.5/5.2	A	B	m
16	제복	1.7PB 2.1/1.9	A	B	dgy
17	조각보	1.7PB 2.8/2.5	C	B	dgy
18	후수	1.8PB 2.3/2.7	B	B	d
19	단령	1.9PB 2.3/2.0	B	B	d
20	제복	2.1PB 3.4/6.9	A	B	m
21	활옷	2.2PB 3.2/3.7	B	B	gy
22	제복	3.3PB 2.2/3.3	A	B	d
23	당의	3.4PB 3.9/3.5	A	B	gy
24	당의	3.5PB 3.8/2.8	A	B	gy
25	조각보	3.6PB 3.0/0.2	C		N
26	후수	3.7PB 2.9/6.5	B	B	d
27	후수	3.7PB 3.3/7.4	B	B	m
28	조각보	4.4PB 1.9/3.7	C	B	d
29	제복	4.4PB 3.0/8.4	A	B	m
30	단령	4.4PB 3.1/8.5	B	B	m
31	제복	4.5PB 3.1/8.1	A	B	m
32	제복	4.6PB 2.6/5.7	A	B	d
33	조각보	5.3PB 2.3/4.5	C	B	d
34	조각보	5.4PB 1.8/2.6	C	B	d
35	조각보	6.1PB 1.1/2.2	C	pB	d
36	대	6.3PB 2.5/5.8	B	B	d
37	원삼	6.5PB 1.5/4.6	C	pB	d
38	철릭	6.6PB 2.4/7.6	A	B	dp
39	구군복	6.7PB 1.9/6.0	A	B	d
40	저고리	6.7PB 2.5/8.3	A	B	dp
41	굴레	7.2PB 1.5/6.8	C	pB	d
42	구군복	7.3PB 1.8/2.9	A	pB	d
43	굴레	7.7PB 1.9/8.1	C	pB	dp
44	조각보	8.1PB 1.1/6.6	C	pB	
45	조각보	8.2PB 1.7/7.9	C	pB	dp
46	단령	8.5PB 1.8/8.6	B	pB	dp

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채도의 출현율이 낮은 것은 본시, 천연염색의 복합색소에 의한 가라앉고 침착한 색조의 특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Table 9의 복식유물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비율을 보면, 계통색명에서는 B, pB, gB, N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톤에서는

Table 8. 복식유물 측색치의 HV/C 분포도

C						계
10/						
8/			3	2	1	6
6/		1	2	3	2	8
4/	1	1	1	3		6
2/	1	1	4	6	3	19
/	2		2	2	1	7
			V			
8/						
6/						
4/	1	1				1
2/	2	1	6	10	4	33
/				1	7	3
H	5B	10B	5PB	10PB		

Table 9. 복식유물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비율

	B	gB	pB	N	비율(%)
m	6	3	0	0	19.6
d	13	1	5	0	41.3
dp	2	0	3	0	1.9
gy	3	0	0	0	6.5
dgy	8	0	0	0	17.4
N	0	0	0	2	4.3
비율(%)	69.6	8.7	17.4	4.3	100

d, m, dgy, dp, gy, N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따라서 청색계유물의 색조는 육안으로 볼 때에는 침착하고, 가리앉은 느낌의 청색조가 다수였다.

## 5. 에도시대의 복원염포에 나타난 청색계 색조의 특성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색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1년 일본섬유진흥회(日本織維振興會)에서 출판된 「日本古來きものの色」을 자료로 조사하였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일본의 전통적인 기모노의 색을 280색으로 정리하였는데, 색명과 그에 해당하는 염색포를 첨부하여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본장에서는 에도시대의 기모노의 색을 복원한 복원염포 280색을 색채색차계(Minolta CR-300)로 측색하여 청색계에 해당되는 2B부터 9PB 미만의 43색의 색명과 측색치를 정리하였다 (Table 10). 정리방법으로 측색데이터는 면셀기호로 나타내고, 이를 JBCC의 계통색명과 톤 분류로 표시하였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모노의 280색 중, 청색계는 43색(출현율은 15.4%)으로, 타색에 비하여 출현율이 월등히 높지는 않았다.

Table 11은 복원염포의 측색결과를 HV/C의 분포도로 그 출현수를 정리한 것이다. HV/C의 분포도를 보면, 명도는 저명도가 19예, 중명도가 19예, 고명도는 5예였다. 복원염포의 대부분이 저명도와 중명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C의 색상별 채도구분을 적용한 채도의 분포는 저채도가 12예, 중채도가

Table 10. 「日本古來きものの色」의 측색데이터

순서	기모노의 색명	측색데이터 (면셀기호)	계통색명	톤
1	남색(藍色)	2.3PB 2.2/5.6	B	d
2	남어납호(藍御納戶)	5.7B 2.9/6.2	gB	d
3	남세미(藍細美)	8.4PB 2.1/8.8	pB	dp
4	남철(藍鐵)	6.6PB 1.9/2.8	pB	d
5	남서(藍鼠)	8.5PB 3.3/1.1	N	
6	남심천(藍深川)	5.8B 5.0/2.3	B	gy
7	상생납호(相生納戶)	5.7B 5.2/0.7	N	
8	청록(青綠)	0.1B 3.4/5.5	gB	d
9	박람(薄藍)	1.3PB 4.4/6.4	B	m
10	박표색(薄標色)	2.0PB 4.3/4.7	B	gy
11	갈(褐)	8.5PB 1.4/3.9	pB	d
12	길경납호(桔更納戶)	6.6PB 3.5/6.8	B	m
13	길경서((桔更鼠))	7.1PB 2.5/1.3	N	
14	군승서(軍勝鼠)	2.2PB 3.4/2.6	B	gy
15	농표(濃標)	7.5PB 2.0/6.1	pB	m
16	감색(柑色)	7.8PB 1.7/5.2	pB	d
17	감청(柑青)	9.0PB 2.3/15.0	V	v
18	감청등(柑青藤)	9.4B 3.7/5.0	B	m
19	천총(淺蕙)	2.0B 4.8/4.0	gB	m
20	납호(納戶)	3.0B 3.8/3.3	gB	m
21	서(鼠)	0.7PB 2.6/0.6	N	
22	상천총(霜淺蕙)	3.1PB 3.0/8.7	B	m
23	신교색(新橘色)	6.0B 3.0/6.2	gB	d
24	청남색(青藍色)	3.2PB 2.5/6.5	B	d
25	공색(空色)	4.6PB 6.1/3.3	B	p
26	노초색(露草色)	8.7PB 2.6/14.1	pB	v
27	노납호(露納戶)	0.6PB 2.6/1.3	N	
28	철색(鐵色)	6.3PB 2.1/0.8	B	dgy
29	철납호(鐵納戶)	0.8PB 4.0/3.6	B	gy
30	철서(鐵鼠)	0.1PB 3.2/0.9	N	
31	중표(中標)	9.8B 3.1/4.3	B	gy
32	납호서(納戶鼠)	2.0B 3.8/1.5	B	gy
33	위두목색(慰斗目色)	0.9PB 2.9/5.8	B	d
34	위두목공색(慰斗目空色)	4.7B 3.5/2.3	B	gy
35	위두목화색(慰斗目花色)	1.7PB 2.7/5.5	B	d
36	화천총(花淺蕙)	4.5B 3.5/4.2	gB	m
37	표색(標色)	9.1B 3.8/1.0	N	
38	백군(白群)	1.2B 5.1/3.9	gB	m
39	동납호(藤納戶)	9.4PB 3.9/6.6	V	m
40	홍캐길경(紅掛桔更)	6.7PB 1.9/6.0	B	d
41	홍캐납호(紅掛納戶)	8.4PB 3.4/3.3	pB	gy
42	류리색(瑠璃色)	7.1PB 3.1/10.0	pB	s
43	류리감(瑠璃柑)	7.1PB 2.4/7.1	p	d

26예, 고채도가 5예로, 중채도와 저채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2는 청색계 복원염포의 측색치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한 것을 정리한 표이다. 계통색명의 출현비율을 보면, 계통색명으로는 B, pB, gB- N, V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톤의 출현비율을 보면, d, m, gy, N, v-dp, s-p-dgy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Table 11. 복원염포 측색치의 HV/C 분포도

C						계
14/						2 2
12/						
10/						1 1
8/						1 2
6/						3 2 9
4/ 2 1						1 10
2/ 1 2 1						2 10
/ 1 1 1 2 1						2 1 9
V						
8/						
6/						1 1
4/ 2 2 3						7
2/ 2 3 2 3						31
1/						2 2 4
H	5B	10B	5PB	10PB		

Table 12. 복원염포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비율

	B	gB	pB	V	N	비율(%)
v			1	1		4.7
s			1			2.3
p	1					2.3
m	4	4	1	1		23
d	5	3	3			25.6
dp			2			4.7
gy	7		1			18.6
dgy	1					2.3
N				7		16.3
비율(%)	41.9	16.3	20.9	4.7	16.3	100

## 6. 결 론

각 민족은 '민족색채'라 부를 수 있는 민족고유의 색채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민족색채의 고유성을 이루는 배경으로는, 풍토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전통복식은 민족의 독특한 색채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표현매체로써, 민족색채의 고유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문화자료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식물염료인 남을 이용하여 청색을 염색해왔다. 남에서 발색되는 담색인 옥색을 비롯하여, 농색인 아청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청색의 농담색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복식은 물론, 관리들의 관복과 왕가의 복식에서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한편, 일본의 남염(아이조매, 藍染)은 에도시대의 일본인들에게 가장 기호된 염색으로, 그들의 전통복식인 기모노에는 남염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남염은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장점도 있고,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색으로서 에도막부의 정책에도 부합되었으므로, 에도시대의 서민들은 물론 무사들의 복식에서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이처럼 에도시대의 청색은 일본을 대표하는 색이 되어, 구미인들에게도 일본을 상징하는 색, 곧 '재팬 블루(Japan

Blue)'로서 불리어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청색의 고유성을, 민족색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매체인 전통복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근세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청색의 색명과 색조의 고유성을 문헌, 복식유물과 복원염포의 실증적인 측색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의 청색계 색명 40색과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 57색 중, 양국에 공통적으로 출현되는 색명은 '남' 1색에 불과하였다. 또한, 에도시대에 유행했던 서색계 색명이 조선시대의 청색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색명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의 구조는 공통적인 요소로는 기본색명, 기본색명의 조합,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의 대조적인 요소로는 에도시대의 색명에는 2가지 이상의 색명이 조합되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점이다.

3.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색명에는 전시대에 비해 분화색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분화색은 기본색명에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붙어, 기본색의 색상, 명도, 채도에 단계적인 변화를 준 것이다. 조선시대의 청색계 색명에는 수식어 '천', '연', '담'을 붙여 담색을,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에는 '백', '수', '백'을 붙여 담색을 표현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의 청색계 색명에는 수식어 '심', '암'을 붙여 농색을, 에도시대의 청색계 색명에는 '심', '농'을 붙여 농색을 표현하였다. 이 중 '심(深)'은 농색을 표현하는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공통된 표현이다. 또한, 순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조선시대에는 '진', '천'을, 에도시대에는 '소'를 사용하였고, 탁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조선시대에는 '회'를 에도시대에는 '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색명의 유래는 조선시대와 에도시대 모두 염료, 염색방법, 식물, 동물, 광물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다른 에도시대만의 독특한 색명의 유래에는 생활환경에서 유래한 색명과 시대적인 유행현상에서 유래한 유행색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 조선시대의 복식유물과 에도시대의 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의 측색을 통해 본 색조는 유사한 점이 많았다. 양국 모두 색상에서는 Blue와 Purplish Blue가, 톤에서는 dull과 moderate가 많이 출현했다. 또한, 복식유물과 복원염포 측색치의 HV/C의 분포결과를 보면, 양국 모두 명도에서는 저명도와 중명도의 비율이 높았고, 고명도의 비율이 낮았다. 특히, 조선시대의 복식유물에서는 저명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채도에서는 양국 모두 중채도, 저채도, 고채도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색조의 유사점은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에 사용한 남종(藍種)이 유사종의 남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양국의 색조의 대조점으로는 에도시대에는 계통색명에 Violet이 출현하는 것과 Neutral의 출현율이 조선시대보다 월등

히 높았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Violet은 출현율은 낮지만 에도시대의 유행색이었던 '강호자(에도무라사키, 江戸紫)'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Neutral의 출현율이 높은 것은 에도 시대의 서색계의 유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도시대의 복원염포의 색조에는 출현율은 낮지만, 한국의 복식유물에서는 찾기어려운 vivid, strong, pale 톤이 출현하는데, 이것은 에도시대만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오래된 복식유물과 근래에 복원된 복원염포라고 하는 양국의 조사자료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결과로 볼 때 한·일 양국의 청색은 색명에서는 크게 대조적이었고, 색조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았다. 색명이 크게 대조적인 결과에서, 색명의 고유성이야말로 민족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민족색채의 고유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민족색채란 염재나 염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각 시대의 고유한 사회·문화적인 특징에서 유래하는 것이 더욱 크다는 점이다. 즉, 시대에 따라 다른 민족고유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색채문화에 반영되고, 그것이 그 민족 고유의 색채문화를 형성하여 민족색채라 부를 수 있는 색채의 고유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식유물과 복원염포의 비교라고 하는 자료의 제한도 있었지만, 이러한 인접국 가와의 교차문화적인 색채연구는 결국, 한국전통색의 고유성을 명확히 하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청색만을 비교대상으로 했지만, 금후, 청색 이외의 다양한 색조들에 대한 인국과의 교차문화적인 비교를 통하여, 양국 전통색의 고유성을 비교해보고, 그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한국전통색의 고유성을 한층, 분명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1년도 대구·경북지역국립대학교 공동연구과제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김용숙 (1996) "조선조 궁중풍속연구". 일지사, 서울, pp.372-413.  
 김지희 (1993) 염료식물재배 및 염직물제작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21- 435.  
 이경희 (1995) 한·일 전통색의 삼속성에 있어서의 분포특성. 색채연구, 제5호, 201-217.  
 이경희 (1996) 韓·日民族色彩の固有性に關する基礎的研究. 千葉大學博士學位論文.  
 이경희 (1997) 전통색에 나타난 한·일 대학생의 색채기호의 비교. 색채연구 제9호, 163-173.  
 이경희 (1999) 한국 전통색 청·홍의 색조특성. 디자인학연구, 12(4), 317-326.  
 이양섭 (1992) 조선시대 색명 및 그 색 연구. 색채연구, 제3호, 87-99.  
 이은주 (1994) 조선시대 藍種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3.  
 이은주 (1994) 한국 전통복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한국의류학회지, 124.  
 정양완 (1992) "규합총서". 보진제, 서울, pp.148-153.  
 江幡潤 (1982) "色名由來". 東書選書74, 東京書籍, 東京, pp.79-96.  
 福田邦夫 (1987) "日本の傳統色". 東京, pp.76-88.  
 金英淑 (1988) "朝鮮朝末期 王室服飾". 源流社, 東京, pp.222-232.  
 前田千寸 (1983) "日本色彩文化史(復刻版)". 岩波書店, 東京, pp.4-8.  
 松本宗久 (1993) "日本色彩大鑑(近世)". 河出書房新社, 東京, pp.191-236.  
 長崎盛輝 (1990) "色・彩飾の日本史". 淡交社, 京都, pp. 195-219.  
 日本流行色協会 (1979) "JAFCA BASIC COLOR CODE". 東京, pp.87-102.  
 日本織維振興會 (1981) "日本古來きものの色". 東京, pp.1-28.  
 日本流行色協会 (1991) "色のイメージ事典". 同朋舎, 京都, pp.74-79.  
 日本藍染文化協会 (1994) "日本の藍". 日本放送出版協会, 東京, p. 50.  
 オルファッショニアト研究所 (1978) "FIC". 東京, pp.10-13.  
 高島秀造 (1973) "江戸の彩飾". 東屋, 東京, pp.60-83.  
 吉岡常雄 (1982) "植物染料入門". 紫紅社, 京都, pp.8-11.

( 2003년 2월 17일 접수)